

발주처 갑질 뿌리뽑기 '삼각 편대' 완성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 구성... 건설산업·턴키·건설기술용역 등 영역별 맞춤형 처방전 마련

건설시장 곳곳에 숨어 있는 발주처 갑질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정부의 삼각편대가 완성됐다.

건설산업, 턴키, 건설기술용역 등 갑의 횡포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역별로 맞춤형 처방전을 마련하는 게 핵심 임무다.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번 TF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으로 구

성됐다.

여기에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업체 12곳이 참여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TF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업체를 분리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노조의 참여를 통해 생생한 사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불공정 특약이나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TF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

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기술용역 TF 운영에 앞서 건설산업과 턴키 분야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TF는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갑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한 TF는 갑질 개선 대상을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은 물론 한 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분야 발주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 설정하고 새로운 불공정 관행을 발굴한다.

지난 2월 킥 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전수조사를 거쳐 30여 건의 불공정 관행 사례 취합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발주기관에 전달하고 맞춤형 대책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다.

턴키 관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TF도 한창 진행 중이다.

턴키 분야의 경우 발주기관과 건설사, 건설사와 설계사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설계변경을 요구한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건설사가 설계사에 적정대가를 주지 않는 관행 등이 중점 개선 과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발주기관의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만 이행력이 부족했다"면서 "건설산업 위기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선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갑질 요소를 제거해야만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코스메틱 페어 진행

롯데백 전주점, 오는 7일까지 진행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화장품 연중 최대행사인 코스메틱 페어(Cosmetic Fair)를 오는 7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이번 황금연휴 기간 중 1층에서 진행되는 Cosmetic Fair는 화장품 유명브랜드가 대거 참여하는 박람회 형태로, 구매 금액대별 상품권 사은행사, 감사품 증정, 더블마일리지 적립 등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다채로운 행사와 특별한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3일 석가탄신일 휴일에는 브랜드 별로 전주점 단하루 단독 기획세트를 구성하여 추가 샘플을 받아 볼 수 있고, 인기 선물 기획세

트 및 금액대별로 다양한 감사품도 풍성하게 증정할 계획이다.

또한 백화점 최초로 진행되는 명품 LED 홈케어 피부관리기 전문브랜드인 '부데이' 초청 행사에서는 25% 할인된 세트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그룹전에서는 어버이 날을 맞아 기획된 선물세트가 준비돼 있고, 클라란스, 시세이도, 랑콤, 에스티 로더 브랜드에서는 하나의 제품만 구매해도 정품용량의 추가 구성품을 증정하는 판타스틱 듀오 행사도 진행한다.

/인재용 기자

대선 앞두고 인기 식품 가격 인상... 서민 가계 '울상'

라면·치킨·맥주 등... 필수 인상 비판 고조

라면, 치킨은 물론 맥주까지 가격이 무섭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탄핵정국을 거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혼란스런 시국을 틈탄 필수 인상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삼양식품은 1일부터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맛있는라면, 나가사끼짬뽕 등 12개 제품 가격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중 삼양라면은 기존 760원에서 810원으로 6.5%, 짜짜로니는 850원에서 900원으로 5.9% 오른다. 삼양식품의 가격 인상은 2012년 8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회사 측은 "인건비, 물류비 등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농심은 지난해 12월 신라면, 너구리 등 12개 브랜드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올렸다. 신라면은 780원에서 830원(6.4%)으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라면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오투기와 팔도 등 다른 업체들의 가격인상 결정 역시 사실상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라면과 함께 국민 대표 먹거리인 치킨값도 오른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이날부터 치킨값을 인상한다. 앞서 BBQ는 지난 달 초 '황금올리브치킨'을 마리당 1

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2000원(12.5%), '황금올리브수산집'은 1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자메리카 통다리구이'는 1만75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각각 올리는 등 주요 메뉴를 평균 9~10%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거의 모든 메뉴가 2만원 전후에 형성되는 셈이다.

업계 1위 BBQ가 '총대'를 맨 만큼 그동안 눈치를 보던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가격인상도 잇따를 전망이다. 슬갸도 올랐다. 지난해 11월 오비맥주는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 인상했다. 한 달 뒤에는 하이트진로가 하이트와 맥스 등 맥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6.33% 인상했다.

버거 가격도 비싸졌다. 1월에는 맥도날드가 2월에는 버거킹이 메뉴별로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400원가량 올렸다. 또 커피전문점 탐앤탐스가 음료 메뉴 가격을 평균 10% 안팎으로 올리고, 자연밭곡,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들도 연말연초에 잇따라 가격을 올렸다.

아울러 삼겹살 가격이 전년 대비 9.2% 오르고 계란값이 AI 여파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국민 식탁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소비자물가도 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 4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가계의 경제고통을 수치화한 1분기 '경제고통지수'는 6.4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사랑 한가득 주먹밥' 봉사활동 실시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지난 28일 순창군 순창읍에 위치한 순창군노인회관에서 소외계층 어르신, 장애인 등 200여명을 초청해 '제11회 사랑한가득 주먹밥' 사랑의 점심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급여 1%를 성금으로 마련해 소외계층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날 이정영 전북은행 부행장과 황

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20여명이 참여해 점심으로 제공된 주먹밥을 직접 만들고 국수와 과일을 준비했으며, 식사 후에는 기념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그동안 도내 사회복지관 11곳에서 '사랑한가득 주먹밥' 행사를 펼쳐, 2,200여명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의 우수기술과 제품을 전시하고, 기술혁신 및 기술인재 육성에 기여한 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참여기업 모집기간을 연장한다.

전북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대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및 기술혁신유공자 포상 후보 모집을 19일까지 연장해 추가모집 한다.

이 행사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전시·홍보하고 기술혁신, 품질혁신, 기술보호, 대·중소기업 기술협력 및 기술인재 육성에 기여한 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기술혁신의욕을 고취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 전시회 참가 및 정부포상 신청은 19일까지 분야별 접수방법에 따라 신청·접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 에너지공, 익산 시온육아원에 가전제품 전달

에너지공단 전북, 익산 시온육아원

고효율 가전제품 전달

한국에너지공단 전북본부는 2일 익산 왕궁면에 소재한 시온육아원에 고효율 가전제품을 전달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본부의 자매결연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시온육아원은 부모의 양육이 어려운 아동들의 보육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교육과 심리상담 등 다차원적인 복지서비스를 전

달하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매년 여름철 무더위와 최근 영유아들의 입소로 시설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단 전북본부는 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해 구매된 전기냉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시료품 전달과 육아원 운영의 애로사항 청취, 생활시설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정읍시 옹동면 녹차농장 일손 돕기 실시

전북농협은 2일 정읍시 옹동면 녹차 농장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NH생명총국, NH손해총국, 상호금융지원단, 정읍시지부, 칠보농협 등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강태호 부부장은 "농협은 연중 지속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하고 있

다"며 "농번기인 5월~6월까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벼 육묘작업과 과수 적과작업, 봉지 싸우기 등 일손이 집중되는 5-6월에 관내 법인 임직원과 함께 대대적인 농촌 일손 돕기를 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